

공연예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획형 해외레지던스 참가후기(2013~2016)

댄스웹스쿨라십 프로그램

사업 개요

프로그램명	ImpulsTanz DanceWEB 2013
국가	비엔나
참가연도	2013년
참가기간	2013. 7.1 2 ~ 8. 12
작가명	박진영

레지던스 기관 소개

세계적인 현대무용 페스티벌 임플츠탄츠에서 만든 댄스웹 프로그램은 장학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뽑는 기준 또한 한국이 아닌 임플츠탄츠안에서 뽑아서 인지 전 세계 젊은 안무자 무용수들이 지원한다. 수천명지원자들 중 매년 전 세계에서 65명의 댄스웹을 뽑아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함께 토론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주고받는 동시에 축제기간 동안 모든 공연 모든 수업을 무료로 참가 할 수 있다. 여기서 리서치 프로그램은 꼭 들어야하는데 집중코스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숙소는 중심가에 있는 학교기숙사에서 모두 같이 머물게 되는데 한 사람당 한 방을 배정해준다. 부엌시설, 세탁시설을 공용으로 쓰게 되고, 샤워시설은 각자 방안에 되어있다.

작업을 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아니다. 지금 흘러가는 세계의 방향(무용, 공연, 수업)에 대하여 보고 배우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토론을 하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함께 마음이 맞는 작업자들은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어나가기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매년 주목받는 안무자가 멘토가 되는데 2013년에는 이볼 디체(Ivo Dimchev)가 맡아서 진행하였다. 함께 지금 주목하고 있는 공연을 보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그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혹은 버릴 수 있는 효과를 준다. 자신이 바라보는 생각을 한 발자국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주요활동

4주 동안 여러 가지 클래스를 신청하여 듣는 동시에 나는 2가지 리서치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 집 발간 및 쇼케이스를 진행하게 되었다. 서로 각자 다른 수업을 듣고 다른 리서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참가자들이 만나는 시간은 공연을 보러 갈 때 혹은 파티가 열리는 밤이었다. 모여 함께 이야기하고 각자의 수업 그리고 본 것, 들은 것, 배운 것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공연은 매일 3편의 공연을 볼 수 있기에 레지던스 기간동안 거의 50편이 넘는 공연을 관람하였다. 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즐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젊은 안무가 무용수들이 모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무용 시스템, 작업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생각 할 것이고, 어떻게 자신의 작업을 실행 할 것인지에 대해 멘토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참가한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 후 한국으로 돌아와 남아공의 키론 지나, 우간다의 케서린 나가사키와 함께 스카이프와 채팅을 통하여 작업을 이어갔다. 2014년 한국예술위원회 민간국제교류기금의 지원을 받아 그해 7월에 문래예술공장에서 한달 동안 머물며 작업한 후 <MAKE APP> 쇼케이스를 오산 문화공장과 서울 오뉴월갤러리에서 진행하였다. 그 후 벨기에 벽스룸에서 초청받았지만 그때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다시 모이지 못하였다. 2016년 베를린에서 만나 다시 한 번 작업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이야기 하였고, 진행 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이 끝나 후 가장 좋은 것은 전 세계를 돌아다닐 때 어디에든 친구가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프로그램을 함께 했던 친구들을 만나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토론하며 서로를 격려해주며 도와주고 작업하고 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기타 사항

숙식과 생활제반 준비를 주최 측에서 모두 해주기에 따로 준비할 것은 없다. 주변에 식당과 대형슈퍼가 있기에 불편한 상황이 없는 것 같다. 선택 사항이지만 자전거를 이동 수단으로 하여 주변을 돌아다니기에도 불편함이 없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이 프로그램은 함께 생활 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스케줄은 주어진 것에서 자신이 선택하여 만드는 것이지만 하루 일과는 아침 9시부터 밤 12시 혹은 넘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업과 공연 관람 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멀리 함께 하는 친구들을 찾는다면 이 프로그램을 추천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 여러 나라를 다니며 친구들과 만나 서로 이야기하면서 발전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 모든 것을 소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영어실력은 준비되어 있어야합니다. 수업 또한 토론 수업이고 함께 말하며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면 어려움이 생길 거 같습니다.

사진 자료

